

전경련 탈퇴 논의 들어간 국책은행

국감서 국책은행 수장들 "탈퇴 검토"… 여론 흐름 지켜보며 국책은행 공동 대응 가능성

최근 주요 대기업들부터 미르·K스포트츠 재단 출연금을 주도적으로 모금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전경련에 대해 회원사인 국책은행들이 탈퇴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각 국책은행장들이 직접 탈퇴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최근 총무부 등 관련 부서에서 전경련 탈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전경련 탈퇴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무위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960년대 이래 은행을 재벌 대기업과 한데 묶어온 구조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기은 관계자는 "권 행장님의 국감 발언 이후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후 권 행장님을 포함한 관련 부서의 생각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이덕훈 수은 행장은 각각 정무위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전경련 탈퇴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문제 지적이 있으니 앞으로 잘 생각해보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산은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부터 회비를



마치 현실처럼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서 시민이 모의주행을 체험하고 있다.

내지 않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전경련과 관련된 논란들이 연이어 터지며 국책은행의 회원사 탈퇴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회비 납부를 미루면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은은 최근 전경련과 연회비 인화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국감에서 나온 이 행장의 발언 이후 탈퇴까지 고려하는 쪽으로 논의 범위를 넓혔다.

국책은행의 전경련 탈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했지만 먼저 총대를 메는 일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향후 공동 대응 가능성도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경련

의 행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에서 탈퇴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움직이기에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며 "일단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다른 국책은행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열어 둘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9월 가계대출 6조1000억 증가

주택담보대출 5조3000억 증가… 각각 역대 두번째

저금리 기조 장기화 속 주택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가계 빚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에 비해 6조1000억원 증가한 68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9월 기준 2008년 통계편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예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0~2014년 9월 평균 증가액은 1조6000억원이며,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는 지난해 9월의 6조2000억원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한 달 동안 5조3000억원 늘어난 51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08년 이후 9월 중에서는 지난해(6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2조7000억원, 2월 2조6000억원을 기록하다가 봄 이사철을 맞아 3월 4조4000억원, 4월 4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이후 5월 4조7000억원, 6월에는 4조8000억원, 7월 5조7000억원, 8월 6조1000억원으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주택거래량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집담대출 등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1만1000가구로 전월(1만2000가구)보다는 소폭 하락했으나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

다. 한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월 8000가구, 5월 1만가구, 6월 1만2000가구, 7월 1만4000가구, 8월 1만2000가구, 9월 1만1000가구로 꾸준한 모습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은 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는 추석상여금 유입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은 1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중소기업 대출(2조1000억원)이 전월(1조9000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반면, 대기업 대출이 분기말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및 일부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등으로 3000억원 감소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은행의 수신잔액은 1436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3000억원 늘었다. 정기예금은 지방정부와 일부 기업 자금을 중심으로 5조2000억원 늘었고, 은행채는 일부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1000억원 늘었고, 머니마켓펀드(MMF)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부 금융기관의 자금인출 및 국고여유

자금 회수 등으로 13조5000억원 줄었다. 채권형 펀드는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증가폭이 1조1000억원으로 전월(2조6000억원) 대비 줄었으며, 신종펀드는 3조1000억원 증가했다. /뉴스

'갤럭시노트7' 여파... 스마트폰 시장 판도 지각변동 예상

삼성전자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애플 등 경쟁사들에게 반사이익 줄 것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여파가 국내외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생산을 일시 중단한 지 하루 만인 11일 갤럭시노트7 교환품에 대한 판매와 교환에 이어 생산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시장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경쟁사들에게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보고서를 통해 "갤럭시노트7의 문제는 애플의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티 롱 BMO캐피탈마켓의 매니징디렉터는 "애플은 하이엔드급(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삼성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브랜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IDC가 발표한 2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2.4%, 애플은 11.8%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갤럭시노트7 퇴장에 따라 그만큼 줄어든 판매량과 함께 이번 사태로 브랜드의 다른 제품에 미칠 영향까지 삼성전자가 안아야 할 뉘이다. 또 차

기작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 역시 약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많은 미국인이 크리마스 쇼핑 시즌에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한다"며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번에는 애플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애플은 오는 14일부터 아이폰7 및 플러스 모델의 예약판매에 돌입하고, 출시일은 21일로 결정했다.

LG전자 역시 V20으로 G5의 판매 부진을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라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갤럭시노트7과 동일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한 구글에게는 자사

의 픽셀폰 국내 진출 시기를 앞당길 명분이 됐다.

한 이동통신 관계자는 "S7에지의 선방 여부에 따라 향후 미칠 영향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아이폰이나 V20이 이익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승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삼성이 앞으로 겪게 될 브랜드 가치의 하락은 앞으로 이를 만회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생산 및 판매 중단으로 애플과 LG전자, 그리고 관련 서플라이체인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뉴스

농협은행 '지수연동예금' 25일까지 판매

연1.00%~2.89% 수익... 1년 만기까지 유지시 원금 보장

NH농협은행은 최고 2.89% 수익에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하는 '지수연동예금(ELD)16-9호'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ELD 16-9호는 13일부터 25일까지 판매된다.

코스피(KOSPI)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최초지수 대비 만기시수가 0% 이상 13.5% 이하 구간 범위 내에서 상승한 경우 연 1.00%부터 최고

2.89%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최초지수 대비 만기시수가 0% 미만 이거나 13.5%를 초과한 적인 경우 수익률이 연 1.00%로 조기 확정되는 '상승낙아웃형'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개인과 법인이며 1년 만기 단일 상품으로 1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수연동예금은 만기까지 유지할 때 원금이 보장된다. /뉴스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상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